

3. 다음을 읽고 '결혼 인턴' 즉 '혼인 전 동거'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쓰십시오. (400~600자 내외)

직장의 정식 구성원이 되기 전에 업무를 미리 경험해 보는 사람을 '인턴(intern) 직원'이라고 부른다.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직장 생활뿐 아니라 결혼 생활도 미리 경험해 보자는 이른바 '결혼 인턴'이 주목받고 있다. 결혼 인턴은 혼인 전에 함께 살아 보는 '동거(同居/Living together)'의 새로운 이름이기도 하다. 과거에는 혼전 동거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이 많았는데 그런 인식에도 변화가 있는 것 같다. 지난해 통계청이 만 13세 이상 국민 38,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8%가 "남녀가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."라고 응답했다. 혼전 동거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2010년 40.5%를 기록한 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. 동거의 또 다른 이름인 '결혼 인턴'이 재평가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?

	'결혼 인턴(혼인 전 동거)'에 찬성한다	'결혼 인턴(혼인 전 동거)'에 반대한다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결혼 이후 갈등이 생길 만한 문제들을 미리 경험하고 같이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. • 집 마련, 결혼식, 데이트 등에 필요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. • 둘이 의지하며 같이 지낼 수 있어 외로움을 덜 느낄 수 있다. • 결혼보다 가벼운 관계이므로 서로에게 얽매일 필요가 없다. • 그 밖에 (.....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잠시 같이 살다가 헤어지는 것은 책임감 없는 행동이다. • 결혼하지 않고 헤어지면 서로에게 상처가 되며 이후 다른 사람과의 결혼 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. • 성(Sex)의식이 혼란스러워지고 미혼모(Single mother) 문제가 확산될 것이다. • 결혼 전 동거는 완전한 결혼 형태가 아니므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. • 그 밖에 (.....)

<참조> [리포트+] '살아보고 결혼하자'...결혼에도 인턴이 있다? (2017년 10월 12일)

▷ 뒷 장의 원고지에 쓰십시오.